

김일엽(金一葉)과 소만수(蘇曼殊)의 정체성과 불교시*

한운진(경원)**

• 목 차 •

- I. 서론
- II. 근대 승려 문인 정체성의 불교적 전개
 - 1. 김일엽, 소만수의 근대정신 - 계몽과 교육
 - 2. 김일엽의 수행과 소만수 삶의 불교적 일관성
- III. 김일엽과 소만수 불교시의 문학적 성취
 - 1. 김일엽 시가 창작의 독창성
 - 2. 소만수 시 번역과 창작의 균형성
- IV. 결론

* 본 연구는 2022년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아울러 2021년 한국중국문화이론학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을 갈무리하였음을 밝혀둔다.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255-286.

한글요약

본 연구는 불교문화와 인물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일엽, 불교, 문학, 동아시아, 근대, 문화인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했다. 김일엽과 소만수는 승려 문인으로 변혁과 혼란의 근대를 살고 간 인물이다. 두 인물의 삶과 문학작품 분석을 통하여 불교 귀의의 의미와 문학적 가치를 제고한다.

먼저 두 인물의 생애 궤적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출가와 수행을 고찰한다. 특히 소만수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퇴영적으로 평가하지만, 결국엔 불교로 귀환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다음으로 두 인물의 문학적 성취를 고찰한다. 김일엽과 소만수는 시, 소설, 서간문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남겼다. 본고는 시 작품을 대상으로 제한하며, 김일엽의 독창성과 소만수의 균형성에 주목하여 시 문학적 특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로 도출한 김일엽과 소만수의 공통점은 근대를 마주하는 교육과 계몽, 생애 전반에 걸친 불교 수행자로서의 견지, 시문 창작법에 있어서 전통과 혁신의 조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제어

김일엽(일엽), 소만수, 불교, 문학, 불교 문화, 시, 선시, 번역

1. 서론

본 논문은 근대 불교문화와 인물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 대상은 김일엽(金一葉, 1896~1971, 한국)과 소만수(蘇曼殊, 1884~1918, 중국)다. 논의를 시작하는 공통점은 근대 변혁기에 활동하며 불교 문인, 사회 활동가로 업적을 남긴 불교 문화인이라는 것이며, 근대 불교문화인의 시대적 역할 고찰을 통해 불교와 문학,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생명이 있는 존재의 삶은 어느 것이든 고유한 존엄과 서사가 있게 마련이며, 역사적 인물의 서사는 작품과 자료로 제공된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타자로서 대상화한 자료를 통해 그들 삶의 걱정과 승화를 살피는 것으로 공감하며 다소간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엽은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인물로 불교, 여성,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목을 받는다. 독특한 삶의 이력과 이와 병행하는 문학작품의 창작, 작품 속의 철리성 등이 각계의 평가를 소환한다. 근대 학계와 사회 각계에서 김일엽이 당대에 받았던 소외와 평가절하가 근대성, 창조성 등으로 전환되어 재평가받고 있다. 김일엽은 당시 불경의 인용구로 가득한 불교 문단에 자신만의 목소리로 불교사상을 펼침으로써 창작적 역량을 드러낸다.

소만수는 중국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출생에서 죽음까지 삶의 곡절이 다양한 승려 문인으로 알려진다. 그는 출가와 환속을 수차례 반복하여 불교에 몰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존의 견해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이는 치열하게 출가 승려의 신분을 견지하려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기어이 불교에 귀환한 일관성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먼저 김일엽과 소만수를 비교하는 논문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모두 사회적인 약자¹⁾이다. 김일엽은 여성, 소만수는 다문화가정²⁾에서 태어난 다문화인(多文化人)³⁾이었는데 시대 상황에 견주어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이 시대와 사회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한다. 둘째, 근대라는 시대적 동시성이다. 비교연구에서 시대적 동시성은 일치성은 아니다. 두 인물의 생몰연대, 출가와 수행 등이 전부 일치할 수는 없다. 생몰의 장단은 다르지만 유사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으로 비교연구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근대적 특징인 교육과 계몽 정신이다. 근대의 정신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계몽 정신은 여러 학자가 동의하는 바이다. 두 문인은 특히 교육과 계몽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넷째, 두 인물은 불교라는 정신적 맥락을 같이한다. 한 개인이 격변기를 살아가는 여러 방식 가운데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문학과 사상에서 독특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방법은 두 인물의 삶을 불교적 정체성과 시문학 이라는 두 방면에서 분석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초적 도입부로 논지와 관련된 불교 입문, 교육, 계몽 등의 활동을 고찰한다. 이를 기반으로 심화하여 시 작품의 불교적 특성을 고찰한다. 두 문인의 시는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

1) 사회적 약자 : 사전적 의미로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김순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 한국청소년학회, 2011, p.252. 이 논문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3) 다문화인(多文化人) : 우리말샘에 따르면 혼혈을 달리 이르는 말, 이질적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로 표현하며 사회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지만 현재는 인문학 대중이 자주 인용 활용하는 단어이다.

고,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으며, 은유를 통해 불교적 사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II. 근대 승려 문인 정체성의 불교적 전개

1. 김일엽, 소만수의 근대정신 - 계몽과 교육

김일엽과 소만수, 두 승려 문인이 살고 간 시대는 근대로 구분되며, 격변기라 평가된다. 근대(또는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근대는 곧 서구이며 서구화라는 등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방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선학의 세심한 연구로 제학이 공인하는 근대(성)의 특징으로 교육과 계몽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두 인물의 근대 마주하기를 교육과 계몽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과 계몽은 애국계몽사조⁴⁾의 형성과 관련된다. 근대 한국과 중국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의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와 마주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애국계몽사조를 들 수 있는데, 근대 문인들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논설, 혹은 소설로 국민 각성을 시도한다.⁵⁾ 김일엽과 소만수도 이와 같은 방

4) 애국계몽사조 : 애국계몽운동은 계몽주의에서 비롯하며, 우리나라는 을사조약 이후 전개되었다. 정치운동으로서의 역할보다 사회운동 중심으로 전개된 특징이 있다. 신문발행을 통해, 교육을 통해 성과를 이루었다. 민간 유지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근대 교육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기독교 계열 학교 수가 크게 증가한다. 계몽주의문학은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190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라고 본다. 1910년대 이후에는 최남선(崔南善)과 이광수(李光洙)에 의해 확대되었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으로 궁지에 몰리기도 한다. 계몽주의문학의 공통점은 작가는 시대적 선각자이며,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125> 참조.

5) 남민수,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에 미친 중국 근대소설론의 영향」, 『중국어문학』 39, 영남중국어문학회, 2002, pp. 384-385.

식으로 교육과 계몽에 앞장선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적 영향력과 파급력은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행적은 스스로 기고한 기사나 창간한 잡지로 전하며, 아울러 지상에 소개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근대 지식인의 교육과 계몽 활동을 근대성의 발현으로 보는데 이는 흔히 근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기도 한다. 김일엽 역시 보통 학교 교사라는 경력이 있고 아울러 자유롭고 솔직한 발언과 주장으로 사회적 교육과 강연을 펼쳤던 기록이 전한다. 이 가운데는 소문 같은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계몽과 관련한 김일엽의 업적은 최초로 여성이 만든 잡지인 『신여자』의 창간을 들 수 있다.

김일엽이 창간한 『신여자』는 구한말 조선의 여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⁶⁾ 재정난으로 4권을 발행하고 폐간했으나 여성이 주도한 최초의 잡지이며 ‘신여성’이라는 이미지로 표상되는 김일엽이 마주하여 발현한 근대적 정체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일엽의 ‘소문’에 가까운 개인사에 주목하는 경향에 대해, 『신여자』라는 잡지의 존재는 전문성과 선구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업적이다. 김일엽이 주장한 여성 해방 논지는 현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순적이라 평가된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이다. 다만 유진월이 평가하듯 김일엽의 발걸음은 “먼저 내디뎠던 그 첫발자국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기”⁷⁾때문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지닌다.

이 잡지에 관한 당시 사회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동아일보』 기사이다. 1920년 5월 4일자 『동아일보』에는 “일엽 김원주녀사(一葉金元周女史)의 주간하는 잡지 신녀자(新女子) 데일호는 이천부를 박았는데 벌써 다 팔리고 호평이 자자하다”⁸⁾라는 기사가 실린다. 김일엽(김원주)가

6) 이성천, 「김일엽 문학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39, 한민족문화학회, 2012, p. 293.

7)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사, 2006, pp.5-6.

8) 『동아일보』 1920.05.04 기사.

『신여자』의 주간으로 창간한 제1호 잡지는 2000부를 발간, 완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평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여자』는 직설적인 논설로 여성의 의식개혁을 주장하고 여성 계몽을 주도하였다.⁹⁾ 이 외 지상에서 각종 문인 모임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강연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활동 가운데 애국부인회라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이 전한다.¹⁰⁾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사로 1922년에는 황해도 수재(水災) 지역 구호 활동을 한다. 1922년 12월 22일 『동아일보』 4면의 기사에 「수해구제순강단(水害救濟巡講團)」이라는 제목으로 광주기독교청년회(光州基督青年會)의 수재구조활동 기사를 싣고 있다. 여기 방명에 김원주(金元周)라는 이름이 들어있다.

김일엽은 불교를 접한 후에는 여성불교청년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조선불교여자청년회(朝鮮佛教女子青年會)의 발기인이자 간부였으며, 이를 단일화한 조선불교청년총동맹(朝鮮佛教青年總同盟)의 중앙집행위원이기도 했다. 이후 재편된 구도에서 경성여자동맹(京城女子同盟)의 집행위원을 지냈으며, 문교부장, 회계장 등을 역임한다.¹¹⁾ 이 무렵 『불교』지에 입사하여 집필 등 문예활동을 계속한다.¹²⁾ 김일엽은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입문한 후에도 교육받은 지식인 신여성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가시적인 업적과 활동으로 그녀가 받아야 했던 억압적 상황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엽은 “과감하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결단력을 가졌으며”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는 “되돌아보고 아쉬워하며 미련을 갖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¹³⁾ 이는

9) 유진월, 앞의 책, p.31.

10) 한운진(경완), 「일엽(一葉) 선사의 만공 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대각사상연구원, 2018, p.234.

11) 김광식,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pp.240-242.

12) 김종진,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불교청년의 성장 서사』, 소명, 2022, p.343.; “『불교』지 46·47합호(1928.5)에 백성옥이, 48호(1928.6)에 김일엽 입사” 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오롯이 승화하여 깨달음에 정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근대의 교육과 계몽은 근대성의 산물이지만 지식인 스스로 자임한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만수의 교육활동과 계몽운동을 살펴본다. 소만수 역시 양인산(문회)(楊仁山(文會)가 설립한 기원정사(祈涇精舍)에서 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¹⁴⁾ 소만수는 기원정사에서 영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담당하여 교육한다.¹⁵⁾ 기원정사는 남경에 있었으며 이 외에 금릉범문학당(金陵梵文學堂)의 영어 교원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기원정사에서 주로 강의하는 한편 백령대학(白零大學)의 교수를 지낸다. 이후에도 환강중학(皖江中學), 육군소학(陸軍小學) 등에서 계몽 교육활동을 이어간다.

이 외 소만수는 적극적으로 사회 혁신·혁명에 참가한 것으로 고증된다. 1902년에 청년회에 가입하여 요절할 때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¹⁶⁾ 소만수는 남사(南社)라는 동맹회에 가입한다. 남사는 ‘민족주의, 반청혁명(反淸革命), 문학연구’라는 기치를 들었던 문학단체이다. 남사라는 이름의 뜻은 만청(滿淸)을 북이라 할 때 대적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진거병(陳去病), 고욱(高旭), 유아자(柳亞子) 등이 주요 인물이다. 유아자는 남사의 성립과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한 바 있으며 주요 발기인의 모색기를 거쳐 1909년에 성립한 것으로 고증한다. 유아자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소만수도 여기에 동참한다. 당시 남사에는 유명한 문인들이 모여 있었고, 소설가, 번역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동참한다.

13) 유진월, 위의 책, p.6

14) 조명제, 「동아시아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동아시아불교문화』 2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p.105.; 樓宇烈, 坂本ひろこ譯, 「中國近代佛學の振興者-楊文會」, 『東洋學術研究』 25-1, 1986의 재인용. 양문회는 청말 거사 불교계의 주요 인물로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를 세우고 불전을 간행하여 중국 근대불교 발흥에 기여한 인물이다

1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근대동아시아의 불교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pp.126-127.

16) 박영환, 「중국근대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사유와 역사의식」, 『불교연구』 35, 한국불교연구원, 2011, p.212.

소만수는 남사의 간행물인 『남사총각(南社叢刻)』 제3집 『문선(文選)』 「고천매 논문학서와與高天梅論文學書」에서 바이런과 셸리 등 서양의 시인을 찬탄한다.¹⁷⁾ 소만수의 문학적 업적으로는 최초로 바이런의 시를 전면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 소만수의 계몽 활동은 불교와 관련하여 “승려의 고적이 배어있다; 교육사업 및 문학, 불학의 각종 저술”¹⁸⁾이라는 평가가 주목된다. 그의 작품에 불교적으로 승화된 내용과 승려로서의 품모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학교 외에 불학원(佛學院)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불교적 계몽 교육을 이어간다. 이로써 그를 지탱한 사상은 불교이며 궁극의 귀의처 역시 불학이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소만수가 불교 소설의 맥락을 이었으며, 근대 비극 정신, 근대 자유 정신, 근대 전통문학의 재발견이라는 기제가 있다는 평가¹⁹⁾와도 상통한다.

이상에서 김일엽과 소만수가 근대를 마주하며 교육과 계몽이라는 지식인의 소임을 다했으며 불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충돌을 돌파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17) 孙之梅, 「南社及南社研究」, 『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0, pp.10-12.

18) 박노중·권혁건, 「근대 거사불교와 근대적 글쓰기 전략」, 『동북아 문화연구』 2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p.244, “작가의 생활 이력 때문에 그의 소설에는 승려의 孤寂이 배어있다.”; 北京大學, 『中國文學史』,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59; 「혁명을 고취한 남사」 “교육사업 및 문학, 불학의 각종 저술과 번역에 종사한”; 復旦大學, 『中國文學史』, 中華書局, 1959의 재인용.

19) 박노중, 위의 논문, pp.257-258, “소만수의 불교 소설의 맥락을 열었고, 郁達夫, 徐志摩, 施蛰存, 王統照, 林語堂, 俞平伯, 許地山, 無名氏 등이 그의 영향과 과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 현대소설의 불교적 미학이 계승은 200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高行健의 문학사상은 이러한 중국문학의 전통적 가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희곡 작품 『八月雪』과 소설 『靈山』등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이러한 사상적 가치를 현대적 문학 수법으로 체현하여 고스란히 승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김일엽의 수행과 소만수 삶의 불교적 일관성

김일엽과 소만수의 출가와 수행 서사 - 생명이 지닌 고유한 서사, 한 인물의 일대기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일정한 시점을 통하여 구성된다. 역사적 흔적을 남긴 인물의 행적은 역사의 한 항목이 되어 후인들에게 교훈과 지침을 남긴다. 본 절은 두 인물 삶의 서사 가운데 불교 입문, 출가, 수행의 시기를 논술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이를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첫째 개별적 삶의 일대 전환기이기 때문이며, 둘째 후일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셋째 끝내 존재 이유가 된 것이 불교이기 때문이다.

김일엽의 생과 업적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문이 존재하며²⁰⁾ 영어로 평전이 출간되기도 했다.²¹⁾ 국내 비구니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가지적 원인으로 스스로 창작한 저작물이 현전한다는, 물리적 조건을 들 수 있다. 현재에도 비구니로서 창작물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더욱이 김일엽이 살았던 시대는 자신의 이름을 내 걸고 독창적 저작물을 출간한다는 것은 승려로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

20) 成樂喜, 「金一葉 文學論」, 『아시아여성연구』 17,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1978; 鄭英子, 「金一葉의 文學 研究」, 『睡蓮語文論集』 14,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수련어문학회, 1987; 이태숙, 「『여성해방론』의 낭만적 지평 - 김일엽론 -」, 『여성문학연구』 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盧美林의 「樋口一葉와 金一葉의 여성성 대조」, 『일어일문학연구』 40,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김현자, 「자유 의 길, 구도의 글쓰기」, 『한국시학연구』 9, 한국시학회, 2003; 신달자, 「新女子 김일엽의 파격과 종교적 귀의」, 『(작고여성문인 문학 재조명 세미나) 시인 김일엽 선생』, 한국여성문학인회, 2003; 兪珍月, 「김일엽의 『신여자』 출간과 그 의의」, 『비교문화연구』 5, 경희대학교부설비교문화연구소, 2002; 방민호, 「김일엽 문학의 사상적 변모 과정과 불교 선택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 2006; 김광식,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등 생애 관련 연구 외에 다수.

21) Jin Y. Park(박진영),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ö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한글 번역본 출간 예정.

성으로서도 쉽지 않았던 선구적인 일이었다. 어렵게 출간된 저작물은 당시 화제를 일으키며 인기 도서가 되었으며 호사가들은 그저 그런 흔한 연애담으로 치부하였다. 근래에 와서 연구자들에 의해 애정 고사라는 은유를 넘어 내포한 의미에 주목하며 문학적 철학적 가치가 재고되고 있다.

주지하듯 이러한 모든 세연을 뒤로하고 김일엽은 금강산에서 출가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스승은 불교의 가르침 곧 ‘법’의 스승이었던 만공 선사이다. 이후 김일엽은 스승 만공의 뜻에 따라 절필하였으며 이 기간은 비구니 제일 선원 수덕사 견성암과 환희대에서도 용맹정진을 이어가던 시기이기도 하다.²²⁾ 비교적 잘 정리된바 있는 김일엽의 출가는 일대 역설로 회자하며 한때를 풍미한다. 대중에게 신여성 김원주의 출가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에는 아랑곳없다는 듯 김일엽은 출가 후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한다.

출가 후 30년간 입승을 역임하였다던가 명실상부 용맹정진으로 수행하였다는 증언이 전한다.²³⁾ 수덕사 환희대에 주석하는 김일엽 3대(代) 제자(손주상좌) 정진과 월송의 증언에 의하면²⁴⁾, 일엽 스님이 오래도록 입승을 소임으로 맡으셔서 처음에는 법호가 입승인 줄 알았다고 한다.

22) 김일엽의 출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상(無常)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로 인한 명상과 대자유의 삶에 대한 탐색으로서의 결단이다. 둘째는 만공과의 인연이다. 이는 역사와 인생에서 선지식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단면이다. 셋째는 다생겁래(多生劫來) 수행의 결과로 이는 어린 시절 윤심덕과의 추억 등 범상치 않았던 수행자로서의 모습으로 방증된다. 경완 외, 앞의 책, pp.233-234. 윤심덕과의 일화는 8살의 어린 나이였으나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으로 아프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23) 경완(한운진) 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일엽선사의 출가와 수행』, 예문서원, 2007; 민족작가회의 비평분과위원회 저, 『한국 현대 작가와 불교』, 『일엽선사와 선』, 예옥, 2007; 한운진(경완), 『일엽(一葉) 선사의 만공 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대각사상연구원, 2018.

24) 정진은 말년의 김일엽을 곁에서 시봉한 스님이며 월송은 김일엽 생전에는 원고 정리를 전담하였고, 사후에는 유고 문집을 편찬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입승이 선방 소임인 것을 알았고, 부언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선원장 제도가 없었으므로 입승이 대중을 지도하는 소임이었다. 더욱이 “감기가 들어도 눕지 않고 수행하셨는데 입승 스님은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다.”고 전한다.²⁵⁾ 김일엽이 한결같이 수행에 전념하였음을 알려주는 일례이다. 보통 용맹정진이라 하면 밤에도 자지 않고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수행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엽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으나 밤에도 앉아서 수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검소하고 절약하는 수행자의 면모는 남겨진 유고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고는 원고지에 몇 겹으로 다시 고쳐 쓴 것은 차치하고, 편지 봉투를 넓게 펼쳐서 이면지를 활용한 것이 다수이다. 세상의 화제가 된 『청춘을 불사르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김일엽은 사중, 대중 우선이라는 공심(公心)으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들어온 공양물을 개인적으로 수거한 경우는 없었다. 비구니 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성암 신축 건립에 힘쓰는 등 원력행을 이어간다. 이후 불교계의 공인을 받은 김일엽의 장례는 최초의 ‘전국비구니장’으로 치러지며,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²⁶⁾ 여성 선각자로서 계몽과 교육의 삶을 정리하고 출가한 김일엽은 투철한 불교 수행자로 살아내며 자신의 심득(心得)을 깨달음으로 승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김일엽의 출가수행을 정리하면, 첫째 세간의 편견과는 다르게 오롯이 출가인으로 평생을 다한다. 둘째 수행에 있어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철저했다. 셋째 불교로 얻은 깨달음을 저서를 통해 회향한다.²⁷⁾

소만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불교문학, 소설에 관한 것 등으로 소략하

25) 대전 MBC 특집 다큐,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 38분~40분, 2014년 9월 방송.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eYm8cXOE8-8>

26) 위의 다큐.

27) 출가의 의미에 관해서는 앞의 주석 21)번 참조.

다.²⁸⁾ 그의 일생은 친구이자 문인인 유아자(柳亞子)가 편집한 『소만수전집(蘇曼殊全集)』에 전한다. 현존하는 소만수에 관한 가장 완벽한 전집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유아자와 양홍렬(楊鴻烈)이 쓴 소만수에 관한 중국어본 전기와 있고,²⁹⁾ 이외에 양두건(梁杜乾)이 1924년에 쓴 영어본 「만수대사전략(曼殊大師傳略)이 실려 있다.³⁰⁾ 이에 근거하면 소만수의 속명은 현영(玄瑛), 자는 자곡(子谷), 법호가 만수(曼殊)이다. 아버지가 광둥(廣東)의 상인이며, 모친은 일본인으로 근래 상용하는 용어로 소위 다문화인(多文化人)이다. 이러한 혼종성으로 인해 소만수가 사회적 소외감을 느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아버지가 11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일본에 있어서 소만수는 사실상 천애의 고아였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소만수의 고뇌와 방랑, 출가는 이처럼 외로운 현실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소만수 출가수행에 관한 논의 역시 불교 입문과 수행과정 두 가지로 진행한다. 먼저 소만수의 출가는 전생 인연이라 하는 동진(童眞)으로, 출가 당시 소만수의 나이는 10대 초반이었다. 사고무친이었던 소만수는 12세에(1895년) 광주(廣州) 장수사(長壽寺)에서 삭발하는데 법명이 박경(博經), 법호가 만수(曼殊)이며, 뇌봉해운사(雷峰海雲寺)에서 구족계를 받는다. 소만수의 출가는 척박한 삶을 스스로 개척한 것이고, 그것이 불교 입문과 출가였다는 것이 불교와의 친연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출가 후 얼마 되지 않아 소만수가 발휘한 천재적 재능도 불교와의 필연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소만수는 각종 언어를 단기간에 습득하며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보인다. 출가 후 짧은 시간에 한문과 산스크리트어(범어: 이후 산스크리트어로 통일)에 정통한다. 불교학에서 한문과 산스

28) 박노중·권혁건, 앞의 논문; 박영환, 앞의 논문.

29) 柳亞子 編訂, 『蘇曼殊全集』, 哈爾濱出版社, 2011, pp.396-424. 이 외에 『蘇和尚雜談』에 소만수의 알려지지 않았던 생평과 문학적 업적을 정리하였다. 전집에는 유아자 외에 楊鴻烈, 梁杜乾 등의 문인들이 쓴 소만수 전기가 실려 있다.

30) 柳亞子, 위의 책, p.305.

크리트어는 일종의 공구(工具) 언어이다. 불교의 팔만사천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최초의 불경 원전어는 산스크리트어 또는 팔리어다. 경전의 고전적 의미와 본뜻을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어에 가까운 산스크리트어이므로 이에 능통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 소만수는 약관 20세(1903년)에 서호(西湖) 영은사(靈隱寺)에서 산스크리트어 사전 『범문전(梵文典)』 8권을 완성한다. 외국어 습득은 어릴수록 빠르다고 하나 산스크리트어는 사용자가 희소한 언어이다. 소만수는 어린 나이에 익히고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능통하게 된다. 이는 천재적 재능 외에 불교에서 말하는 ‘숙세(전생)의 인연’이란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소만수의 출가를 불교적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어지는 발심은 자발적이며 진실하다. 구체적으로 불경 원전어 산스크리트어와 관련한 기록에서 발심과 원력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저술한 산스크리트어 사전 『범문전(梵文典)』 자서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유럽 문자의 근원은 라틴어로 보는데 이는 다시 고대 그리스로 연원이 올라가며, 그것의 근원은 실제로는 산스크리트어이다. 고문학의 언어는 한자와 산스크리트어 두 종류뿐이다. 중국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작법(作法)을 하나 오래도록 전문 서적이 없었다. 『용장(龍藏)』이 전하고, 유일하게 당승(唐僧) 지광(智廣)의 『실담자기(悉曇子記)』가 있으나 음운에 오류가 심하고 문법은 일체 알 수가 없다. 다라니를 수지할 수 있는 자원(資源)은 있음에도 그 뜻은 이해할 수 없다. 소납이 일찍이 출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³¹⁾

여기에서 말하는 작법은 불교 범패 의식을 실행하는 행위로 염불, 다라니 지송, 바라춤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

31) 柳亞子, 위의 책, p.40.

음을 가차하여 음역한 것으로 ‘신비로운 주문’이라고 거칠게 해석할 수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 다라니는 전심(專心)으로 수지, 지송(持誦)하면 영험한 것으로 변질된다. 그러다 보니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소만수는 위의 예문에서 자신이 출가한 연유가 작법을 여법하게 진행하고 의미를 되찾으려는 원력 발심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산스크리트어와 관련한 다른 활동으로 일본 범학회(梵學會)의 번역가로 활동한 것을 들 수 있다. 1907년 일본에서 활동 당시 산스크리트어 대장경 편찬을 건의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만수는 외국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던 시절임에도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든다. 어머니가 일본인이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은 거의 매년 왕래한다. 산스크리트어를 2년간 배웠던 태국[暹羅]³²⁾에서 열린 방콕청년학회[盤谷青年學會]³³⁾(1904년)에서 강연하며 스리랑카 보리사(菩提寺)에 주석하기도 한다. 1909년에는 남쪽 싱가포르를 순회하고, 1910년에는 인도로 떠나는데 다음 해 여름 돌아올 때는 일본을 통해 귀국한다. 소만수의 문학 세계를 자유주의 정신이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번역 작업 역시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다. 박노종은 소만수가 산스크리트어 번역에 열정을 보인 것이 불교를 통해 자유주의적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해석하였다.³⁴⁾

소만수는 1918년 35세로 요절하는데 특이한 습관이 원인이 되어 삶을 마감한다. 이른바 자살 정책이라는 것으로 음식을 폭식하는 행위이다. 장태염(章太炎)은 「만수유화병언(曼殊遺畫并言)」에서 소만수가 열음을 대여섯 근씩 먹어 치우는 행위를 언급한다. 이것은 공연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소모하는 자살 정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음식 습관은 병을 만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상해(上海) 광자의원

32) 暹羅 : 병음-Xiānlú, 삼- 태국의 옛 이름.

33) 盤谷 : 병음-Pāngǔ, 태국의 수도 방콕.

34) 박노종·권혁건, 앞의 논문, p.254.

(光慈醫院)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한다. 소만수는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였는데 그들이 전하는 소만수는 이처럼 괴각(乖角)에 가깝다. 일본에서 함께 동인지를 만들었던 노신(魯迅)의 전언에 의하면, “내게는 기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돈만 생기면 술을 사 먹고, 돈이 없으면 절에 들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 … 돈 생기면 다 써버리고, 돈 없으면 절에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소만수다.”³⁵⁾ 이처럼 소만수의 불교 출가수행은 표면적으로는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순환이다. 더욱이 음주와 음식에 관해서는 이처럼 극단적인 행위를 한다.³⁶⁾

여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당시 중국은 외세에 침탈당하여 중화(中華)라는 자존심이 박탈당하여 전통문화가 소외된다. 외래문화인 서양 과학이 밀려들었고, 당대 지식인들은 이런 배경에서 계몽과 교육을 당면한 소임으로 활동한다. 소만수는 지식인과 교류하며 교육 계몽에 참여하며, 불교 교육과 편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당시 사회의 중심 사조인 마르크시즘은 종교를 금기시하였다. 격변의 시기 안정된 불교적 수행환경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계율, 강학 등을 중시하는 전통불교가 사회적 조류에 휩쓸려 기반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⁷⁾ 계몽 지식인으로서의 소만수와 출가승으로 지켜야 하는 삶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만수는 환속과 출가를 거듭하면서 끝내는 출가승으로서 일생을 마친다. 양쪽의 소임을 다하려는 소만수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35) 吳長華, 「魯迅的一個古怪朋友蘇曼殊」, 『世紀』 43, 2002.06, p.43.

36) 소만수는 자신의 방식대로 계를 파하지 않는 방식을 쓴 것 같다. 불음주(不飲酒)계를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실 때는 과계 행위이니 일반인(속인)으로 마시는 것이다. 일종의 개차법(開遮法) 방편(方便)이다. 개차법을 이처럼 쓴다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되어 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나름의 방식으로 계율을 지키려 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 수행에서 지켜야 하는 계율의 중요 부분을 지키는 방식이 독특하다.

37) 후일 태허대사, 홍일대사 등 근대 중국 고승의 노력으로 중국불교는 계승된다.

소만수 생명을 지탱하는 중심이 불교이며 결국에는 불교로 귀환함을 보여준다. 이상 소만수의 불교 귀의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소만수가 동진 출가한 이후에도 사회계몽과 불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둘째 뛰어난 재능과 열정으로 이룩한 업적이 불교와 관련된다 는 것이다.

Ⅲ. 김일엽과 소만수 불교시의 문학적 성취

불교문학은 개념 정의에 따라 범위가 넓거나 좁게 달라진다. 작자가 승려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김일엽과 소만수의 작품은 불교문학 범주에 속한다. 본 절의 연구 대상은 두 문인이 남긴 불교문학 작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시 작품을 위주로 한다. 시에서 두 문인 모두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으며, 각각의 특색을 자국 고유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김일엽 시가 창작의 독창성

김일엽과 소만수는 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김일엽의 경우 시는 출가 전 작품이 다수이다. 그 원인으로 우선 출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긴 절필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이후 수행 기간을 거쳐 재집필을 시작한 이후에는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기 쉬운 수필 형식의 글을 주로 썼기 때문이다. 김일엽의 시는 출가 전과 출가 후로 구분할 수 있다. 출가 전의 시는 개인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시가 대부분이다. 『고파(孤波)』라는 시를 보면, “어저 내일이여 / 이제는 홀이로다 / 인생의 험한 길을 나 어이 혼자 같까 / 님이야 사귄 님 많으니 / 외로시다 하리까.”³⁸⁾와 같이 외로운 서정을 표현한다. 1930년대

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이는데, 『불교(佛敎)』지에 발표한 시만 보더라도 13편이 전한다.³⁹⁾ 「행로난(行路難)」이 이 무렵의 시로, 불교 귀의 내용을 시사한다. “님께서 부르심이 / 천년전인가! 만년 전인가! / 님의 소리 느끼일 땐 / 금시 님을 뵈옵는 듯 / 법열(法悅)에 뛰놀건만 / … / 님이여! 어린 혼이 / 님의 말씀 양식 삼아 / 슬픔을 모르옵고 가노라고 가건마는 / 지축지축 아기걸음 / 언제에나 님 뵈리까”⁴⁰⁾ 이 시는 한국문학 영역 사업으로 2017년에 영문 번역으로 출판되었다.⁴¹⁾

출가 후의 시는 대략 20여 편이 전하는데 대부분 『불교』지를 통해 발표된다. 송정란은 선지를 내포한 어법인 적기수사법(賊機修辭法)을 운용하여 김일엽의 선시를 분석한 바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한 즉비(卽非)의 설법을 적용한 것이 적기수사법⁴²⁾이다. 김일엽의 오도송 3장 가운데 「1.

38) 김일엽,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인물연구소, 1974, p.50.; 『동아일보』 1926.12.04.; 1932.4 『삼천리』 개작.

39) 한운진(경완), 「1930년대 김일엽(金一葉) 소설의 현실과 치유」, 『춘원학보』 14, 춘원연구학회, 2019, p.110.

40)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p.56. 1932년 『불교(佛敎)』지에 발표.

41) 한용운 외, David MCCANN 역, *The Temple of Words :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동국대학교출판부, 대한불교조계종, 2017, pp.196-197, “The beloved's call- / Was it a thousand years ago? Ten thousand? / As if about to hear the beloved's voice, / and see the beloved right at this moment, / leap up in rapture! / Only know, I am just here. / … / O love, young soul! / The beloved's words, nourishment. / Know nothing of sorrow / and keep on, keep going on, / plodding steps, a baby's, / wondering “When will I see the beloved?”

42) 송정란, 「일엽 선시에 나타난 수사적 표현기법 -적기수사법(賊機修辭法)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90, 2017, p.49.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적기수사법이란 선시를 해석하기 위해 도출한 독특한 미학적 구조이다. 서구의 문예이론이 아닌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송정란은 “적기 적기수사법은 일상을 돌이켜 도에 합치시키는 반상합도(反常合道), 동일과 차이를 융합하고 초월하는 초월은유(超越隱喻), 무한 도약하고 무한 현현하는 상인 무한실상(無限實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시를 표현하는 데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자성’⁴³⁾을 적기수사법 가운데 반상합도(反常合道)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⁴⁴⁾ 이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 직지인심(直指人心) 등 선의 개념을 은유하는 선시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특히 아래 두 장은 시공제한을 초월하는 선시의 풍모를 보여준다. “『2. 송구영신(送舊迎新)』 / 때 본래 있잖거나 / 새 해 간 해 하올걸까. / 생각이 제 지어서 / 오간다고 하는고야. / 다만지 시공화(時空化) 나뿐이라 / 궁굴 자재하여라. (정유(丁酉, 1957)년을 맞을 때)”; “『3. 일념(一念)』 / 천겁전(千劫前) 시간들과 / 만겁후(萬劫後)에 그 일들을 / 이 일념에 갈 무려서 / 전우주를 날 삼으니 / 자연이 스사로와서 날 받으려 생기더라. (무술(戊戌, 1958)년 생일에)”⁴⁵⁾

선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오도송은 시간의 순서, 공간의 제한을 깨트리며 곧바로 가리키는 직관적 방식으로 표현된다. 위 두 장의 선시 역시 그러하다. 김일엽의 오도시는 마음이 가리키는 자성, 그리고 시공의 초월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기존에 전하는 선사의 선시가 주로 앞선 선인들의 한시 어구를 인용하는 것과 다르게 김일엽의 오도시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시어로 표현한다. 형식상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한글 시조에 가까우며 형식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다. 20년대 『불교』지가 한글문화를 창달하려는 학술의 경향성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⁴⁶⁾ 김일엽 문장의 특색이자 가치이기도 한 자

43)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인물연구소, 1974, p.90, “내가 나를 버려 두고 / 남만 따라 해뵈노라. / 가람과 그 말 소리 / 서로 못 봄 같아야서 / 벌 모습 없사옵건만 / 기거자재(起居自在)하여라.(참선 10년째 되던 해)” 1943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

44) 송정란, 「김일엽의 불교시 고찰을 위한 서설」, 『韓國思想과 文化』 75집, 2014, pp.61-85.; 「김일엽의 출가과정과 불교시 변모양상」, 『韓國思想과 文化』 80집, 2015, pp.31-57.; 「김일엽의 선(禪)사상과 불교 선시(禪詩) 고찰」, 『韓國思想과 文化』 85집, 2016, pp.443-466.; 「일엽 선시에 나타난 수사적 표현기법 -적기수사법(賊機修辭法)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90집, 2017, pp.37-63.

45)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인물연구소, 1974, pp.90-91.

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상을 나타낸다. 김일엽은 만년에 ‘생명’을 주제로 우주와 만물, 존재와 자유를 설파한다.⁴⁷⁾ 생명을 몸과 옷, 혼(魂)으로 은유하는데, 「몸과 혼」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에서 김일엽은 존재의 육체와 정신을, 몸과 혼이라는 시어로 표현한다.⁴⁸⁾ 이어지는 다음 시 「네 생명은」에서는 불교의 세계관으로 존재를 설명한다.

네 생명은 무엇인가 행어나 알아보라.
 네 몸은 생명의 옷
 네 혼은 생명의 몸
 옷과 몸이 사라지면
 그 무엇이 네 생명일까?⁴⁹⁾

생명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살리면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를 묻고 있다. 생명의 본 의미에 관해 수상록의 다른 글에서 분명하게 설명한다. “이 몸은 생명의 의복이요, 이 혼은 습관의 집적(集積)이다. 선악(善惡)간의 습관을 따라 변혼(變魂)되는 것으로 천성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이다.”⁵⁰⁾ 이어서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중생의 생명이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설파한다. “이 몸을 여윈 후에는 혼신으로 생전에 지은 대로 다시 무슨 옷(몸은 생명의 의복)이든지 갈아입고 생활하게 된다.”⁵¹⁾ 생명의 의미를 불교의 기초 교의인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로 설명한다. 이후 생명의 의미는 확장되어 근원적인

46) 김중진, 앞의 책, p.348.

47) 한운진, 앞의 논문, p.230.

48)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상, p.84. 몸과 혼 / 이 몸은 생명의 옷 / 이 혼은 생명의 몸 / 이 몸과 혼 / 생명인 줄 그릇 알고 / 몸과 혼 사라질제 / 몸부림쳐 우짚더라.

49) 위의 책, p.85.

50) 『일엽선문』, p.78.

51) 위의 책, p.83.

뜻으로 발전한다. 존재적 생명의 의미에 관해서, “본연의 생명은 느끼기 전이며 생명의 작용이 생각이다.”라고 하며, “그러므로 인간이 되려면 우선 본 생명을 회복하는 공부부터 해야 한다.”⁵²⁾라고 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만년의 녹취록에서도 드러난다.

“부처님의 제자예요. 다 바쳐야 해요. 육체와 혼을 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청춘을 불사르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⁵³⁾ 수행에 일심으로 전심전력해야 함을 고구정녕(苦口丁寧) 일깨운다. 세간에서 재밋거리처럼 회자되던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말의 참뜻은 김일엽에게 있어서는 바로 수행과 다름이 아니다. ‘생명’, ‘자연’이라는 단어는 근대 생태 학계, 일반 사회에서 흔히 사용된다. 김일엽이 쓴 이 단어를 환경과 관련한 의미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회(附會)하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넓은 의미를 고려한 선견지명이 있는 단어 선택이라는 점을 제언해 본다.

이상을 정리하면 김일엽은 기존의 한시와는 독창성으로 선시를 쓴다. 즉 그가 쓴 불교시는 한글로 쓴 창조적인 선시이다. 선시풍으로 불교의 선적 생명 사상과 세계관을 창조적인 한글로 표현한다. 형식상으로는 운율이 있으며 글자 수를 제한하는 시조에 가깝다. 시조 형식으로 리듬 있게 표현하며, 간략한 시어의 창조적 사용으로 격언과 같은 경구가 됨을 알 수 있다.

2. 소만수 시 번역과 창작의 균형성

소만수는 그가 지닌 외국어에 관한 특별한 재능과 소양으로, 다양한 외국 문학작품을 번역함으로써 문학적 업적을 성취한다. 개인적인 재능에 더하여 부단히 연마해온 언어적 소양이 배경 능력이라 할 수 있다.

52)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pp.5-6.

53) 김일엽문화재단 제공, 김일엽 육성과 녹취록.

이는 다문화인이라는 약점이 도리어 장점이 되어 승화된 경우이다. 소만수 시의 문학적 성취는 우선 다국어에 능통하여 번역 시어 사용이 유려하다는 것이다.

소만수는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공부하였고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어와 문물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일찍이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일어를 배웠으며, 광동 향산(香山, 현재 중산(中山)에 속함)에서 중국어 문장을 훈련한다. 일어에 관해 1898년부터 1903년 봄까지 계속하여 일본 현지에서 학습을 이어간다. 영어는 상해에서 배우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기독교 목사 뤼비·쥬상(羅弼·莊湘)⁵⁴⁾에게 연마하며, 독일의 프랑크(法蘭, Otto Franke), 영국 시인 플레처(弗萊徹, W.J.B.Fletcher, 중국어 이름 符佑之) 등 해외학자와 교류한다.⁵⁵⁾ 소만수와 교류를 이어가던 플레처는 당시(唐詩)를 영어로 선역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만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소만수는 중국 고전시를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간다. 중국의 고전시를 영역하여 『문학인연(文學因緣), 『영한삼매집(英漢三昧集)』으로 간행함으로써 중국 고전시를 서구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다.⁵⁶⁾

소만수는 이외에도 시, 소설 등 다양한 번역 업적을 남긴다.⁵⁷⁾ 시와 관련한 업적으로 바이런의 시를 번역한 것이 손꼽힌다. 중국인으로서

54) 뤼비·쥬상(羅弼·莊湘) : 인용한 논문과 기타 자료에 영어 이름이 명기되어있지 않다. 발음으로 추측하면 Robbie(Robert) Johnson 정도일 것으로 추정.

55) 黃軼, 「晚清民初新文學發端的另一重視角—以蘇曼殊與海外漢學家交遊爲例」,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1, p.98.; 유아자 편, 『소만수전집(蘇曼殊全集)』, p.259. 중국어 표기법은 한글 외래어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였다.

56) 유아자, 앞의 책, p.298.

57) 소만수는 서구의 여러 문자를 습득했다. 이러한 언어적 소양을 바탕으로 외국 문학을 번역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이런의 시집, 빅토르외 고의 『레미제라블(悲慘世界)』이다.

바이런의 시를 번역한 것은 그가 최초이다. 이후 문단에서는 소만수를 ‘중국의 바이런’이라 불렀는데 소만수 스스로 자칭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바이런의 낭만성과 소만수 개인적 취향이 일치하며 바이런의 시를 선택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소만수가 바이런의 시를 번역하여 소개한 것을 기점으로 당시 중국 문단에서는 바이런의 시가 크게 유행한다.⁵⁸⁾ 소만수가 번역한 『바이런 시선(拜倫詩選)』 가운데 가장 이른 판본은 1914년 발행본이다. 서지에는 “무신(戊申, 1908)년 9월 15일 초판, 임자(壬子, 1912)년 5월 초3일 재판, 갑인(甲寅, 1914)년 8월 17일 삼판”⁵⁹⁾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유아자에 의하면 무신년 발행은 불가하며, 따라서 재판도 없었을 것이며, 1914년이 최초라 고증한다. 소만수가 번역한 시 가운데 한 편으로 『贊大海, The Ocean, 대양』를 살펴본다.

『贊大海, The Ocean, 대양』는 바이런의 장편서사시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4권, 179번(『Childe Harold's Pilgrimage, Canto IV, Stanza 179』)이다. 이 시는 국문학계에 오랑(鰲浪)의 번역이⁶⁰⁾ 전한다. 김용직은 이 시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최남선의 시가 이 시의 “패로디에 가깝다”고 평가한다.⁶¹⁾ 소만수도 중역(中譯)하

58) 張夢婷, 「蘇曼殊 譯介, 『拜倫詩選』原因探析」, 『北方文學』, 2019(03), pp.199-200.

59) 敖光旭, 「蘇曼殊文化取向析論」, 『歷史研究』, 2010(05), p.105.; 潘重規, 『蕪春黃季剛先生譯拜倫詩稿讀後記』, 武漢老齡科學研究院等編; 『黃侃紀念文集』,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9年, pp.142-151 재인용.

60) 金容稷, 「新文學草創期翻譯詩論攷」, 『白山學報』 3, 백산학회, 1967, pp.556, “『少年』에 실린 바 있는 鰲浪역 Byron의 Ocea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隆熙2년 11월 1일 발행 『少年』 제3년 제6권에 실려있는 이 역시는 전체가 6련이며 각행이 9행으로 되어있는 원작을 거의 축자어역으로 옮겨 놓고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도 서지 또한 오류가 있는데 번역시가 실린 바른 서지 사항은 “『少年』 03년 06권, 新文館, 1910(隆熙 04)년 06월”이다. 이 권호에 목차는 “大洋(빠이론原作)=5 / TheOcean(Byron)=10”이며, 역시는 pp.5-9, 원문 pp.10-11에 실려 있다.

61) 김용직, 위의 논문, pp.562-563.

며 『贊大海, The Ocean, 대양』라 제했는데, 최남선과 같이 일어 번역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皇濤 ① 瀾汗, 靈海黝冥.

萬艘鼓楫, 泛若輕萍.

芒芒 ② 九圍, 每有遺虛.

曠哉天沼, 匪人攸居.

大器自運, 振蕩粵峯.

豈伊人力, 赫彼神工.

罔象乍見, 決舟沒人.

狂暑未幾, 遂爲波臣.

掩體無棺, 歸骨無墳.

喪鐘聲嘶, 逝矣誰聞.

드넓은 파도, 깊고 어두운 신비한 바다.

천만 척의 범선, 가벼운 부평초로 떠 있네.

망망한 대지, 폐허만이 가득하고.

광활한 천연 연못, 사람이 안거할 곳은 아니라네.

대해의 진동과 기복은 자연의 힘으로 움직임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까? 갑자기 진노하는 신의 힘이니.

망상(罔象)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배도 사람도 사라지네

물에 빠져 살려달라 외치지만,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네.

감쌀 관도 없고, 유골을 묻을 무덤도 없네.

조종 소리 울리나, 멀고 멀어 누구에게 들릴까?

영시 원문은 고어가 혼재한다. 소만수의 중역은 형식상 중국 고시 형식대로 사언구를 쓰고 있다. 중국 고시는 전고를 통해 시의 내용을 은유하며 나타낸다. 두 가지 전고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첫 4구에 쓰인 ‘瀾汗’는 『문선·목화·해부(文選·木華·海賦)』의 “洪濤瀾汗, 萬裏無際”에서 따온 것으로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한시의 전고(典故)를 활용 기법으로 전통 시의 활

용이다.

② 셋째 줄 5번째 구에 있는 ‘九圍’는 『시경·상송·장발(詩經·商頌·長發)』의 “帝命式於九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 고전 시 창작에서 용전을 쓰는 것은 시작법의 전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언체와 전고의 사용 등은 중국 고전 시문학의 형식미를 살린 것으로, 중국 고전 시 전통의 계승이다. 그러나 시의를 떠나 중국적인 공맹(孔孟)의 도덕으로 번역하던 당시의 풍조를 따른 것은 아니다.

소만수는 “시인의 시”를 중시하였으며, 이는 순수 시가를 중시하는 관점이다.⁶²⁾ 소만수가 생각하는 시인은 공맹의 도덕으로 시를 쓰지 않으며 자신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다. 근대적 의미의 시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시를 이런 특징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전통 고전시와 분명 다른 개념이다. 소만수가 전통성과 순수시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시는 「대해」라고 제목을 바꿔 소만수의 소설 「단홍영안기斷鴻零雁記」⁶³⁾에 재삽입한다. 「단홍영안기」는 27장(章)으로 구성된 단편 소설이다. 자전적 성격을 지니며 당시 유행하던 원앙호접파(鴛鴦蝴蝶派)⁶⁴⁾ 유형이다.⁶⁵⁾ 당시에 이 소설의 내용은 소만수 삶의 자전적 반영으로 여겨지며 널리 알려진다. 화자는 나(余)이며 소만수 생이 곳곳에 투영된다. 첫 장에서 머물던 사찰에 관한 묘사와 함께 출가 귀의한 은사 스님도 자신의 슬픔을 없애지 못했음을 토로한다.⁶⁶⁾ 「대해」가 실린 「단홍영

62) 黃軾, 앞의 논문, p. 102.

63) 『소만수전집』, 「단홍영안기斷鴻零雁記」 제7장, p.184.

64) 원앙호접파(鴛鴦蝴蝶派) : 청말민초(清末民初) 1920년대에 상하이에서 성행했던 문학의 한 유파로 부박(浮薄)한 염정(艷情)을 소재로 삼았다고 정의된다. 주로 연애 고사를 서술하여, 생사를 같이하는 원앙새, 한 쌍의 나비의 범위라 한 것에서 유래한다. 주간잡지 『禮拜六』, 『眉語』 등을 창간한 후 크게 유행했으며, 통속소설이 진일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65) 박노중, 「그림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통한 중국문학의 근대성 생성 연구 - 소만수의 소설 『斷鴻零雁記』와 題畫를 중심으로」, 『中國學』 55, 대한중국학회, 2016, p.236.

안기」 제7장을 통해 시를 번역할 당시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 「단홍영안기」 7장에서 주인공 나는 배를 타고 떠나며 영어를 배웠던 목사 부부에게 셰익스피어, 바이런, 셸리의 책을 받는다. 이어 바이런을 중국의 이백으로 천재이며, 셰익스피어는 중국의 두보로 선재(仙才), 셸리는 중국의 이하로 귀재라 비교한다. 아울러 「대해」의 원시가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의 끝부분이라고 명기하고 번역시를 인용한다. 7장의 마지막 문장에는 달이 떠오르는 밤 시를 낭송하며 요코하마에 도착한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⁶⁷⁾ 중국시의 특징 가운데 낭송을 들 수 있는데 도착 묘사에서 전통시가적 특징을 묘사한다. 이상을 통해 소만수는 서구 시가를 번역하거나, 전통시를 서구에 번역하여 알리는 경우에도 고전 전통의 형식과 순수시 사이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소만수의 시에는 선시에 쓰는 단어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면 “정선(情禪), 색상(色相), 공(空), 구년면벽(九年面壁), 공상(空相), 지석(持錫), 경(經), 선심(禪心), 원(怨), 진(嗔), 치(痴), 애(愛), 재(齋), 입정(入定), 암(庵), 부도(浮圖), 가사(袈裟), 망혜파발(芒鞋破鉢), 오사(烏舍), 미체시(未剃時), 경대(鏡台), 겁후회(劫后灰), 성불(成佛), 시승(詩僧), 고승(孤僧), 범토(梵土), 겁화분(劫火焚)” 등이 있다.⁶⁸⁾ 시어 운용에 불교 용어를 사용, 선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만수가 쓴 선시풍의 순수 창작시 가운데 1909년에 쓴 본사십장(本事詩十章)이 있다. 이 시는 7언시 10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생을 돌아보는 시이다. 제2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일생 가련한 신세를

66) 유아자, 앞의 책, 『소만수전집』, 「단홍영안기」, 1912년작, p.179, “願吾師雖慈藹, 不足以殺吾悲, … 余殆極.人世之至戚者矣!”

67) 위의 책, pp.184-185.

68) 陈庆妃, 「苏曼殊禅诗的士大夫品味」, 『安徽文学』(下半月), 2008(04), 8+16, p.16.

한탄하는 듯하다. “이 몸 낳아준 어머니 무정도 하구나 / 마야부인께 묵은 인연을 여쭙 봐야겠네.”⁶⁹⁾ 마야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다. 석가모니도 어머니 없이 이모의 손에서 자랐음을 상기하며 아울러 어려서 부모님과 이별한 소만수의 신세도 떠올리게 한다. 다음으로 마지막 수는 참선 수행의 어려움과 초연함을 전고를 들어 묘사한다. “9년 면벽 헛되어 흘러가고 / 이제 지팡이 짚고 돌아와 그대 만남을 후회하네/ 내 마음을 저 버린 지 얼마인가 다시 보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이 쟁을 즐기도록 놓아두리”⁷⁰⁾ 어머니를 그리는 듯한 두 번째 수나 마지막인 제10수는 불교 시어의 운용과 함께 소만수의 삶이 보여주는 숙명적 의로움을 나타내는 비극적 정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선시의 경우에는 비극적 정서와 선시 시어를 균형 있게 사용한다.

IV. 결론

유사한 시기를 살아온 두 인물 김일엽과 소만수의 삶과 문학작품을 분석하였다. 김일엽과 소만수는 근대의 승려 문인으로 그들의 불교문학 창작 가운데 시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근대, 불교, 문학, 문화인에 관한 범문화적 관심에서 비롯하여 불교로 종신 귀의한 두 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먼저 김일엽과 소만수의 생애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출가와 수행 부분을 다루었다. 김일엽의 수행을 부각하고, 소만수에 관해서는 삶의 치

69) 위의 책, p.14, “生身阿母無情甚, 爲向摩耶問夙然.”

70) 위의 책, p.14, “九年面壁成空相, 持錫归来悔晤卿, 我本负人今已矣, 任他人作乐中箏.”-“我本负人今已矣, 任他人作乐中箏.”의 전고는 남한(南汉)의 사(詞) 『억강남(忆江南)』의 “平生願, 願作樂中箏. 得近玉人纖手子, 砑羅裙上放嬌聲. 便死也爲榮.”이다. 黃損이 약혼녀 裴小姐에게 준 화려하고 선정적인 시로 평가되며 전래한다.

열함과 근원성을 재고하며 연민과 가치를 더하였다.

본 고를 통해 밝혀진 김일엽과 소만수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첫째 근대를 마주하는 교육과 계몽, 둘째 생애 전반에 걸친 불교 교의의 견지, 셋째 시 창작의 창조성과 균형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일엽, 소만수 모두 시 외에 소설, 서간문 등을 남겼는데 본 고는 시에 특정하여 고찰하였다. 문학적 가치에 관해서 특히 직접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간문에 관해서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른 논문에서 다룰 것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김일엽(金一葉), 『어느 수도인의 회상』, 수덕사 견성암, 1960.
_____, 『청춘을 불사르고』, 문선각, 1962.
_____,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휘문출판사, 1964.
_____,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上· 下, 인물연구소, 1974.
_____, 『一葉禪文』, 문화사랑, 2001.
_____, 『청춘을 불사르고』, 김영사, 2002.
蘇曼殊 著, 柳亞子 編訂, 『蘇曼殊全集』, 哈爾濱出版社, 2011.

<저서>

- 김종진,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불교청년의 성장 서사』, 소명, 202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근대동아시아의 불교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민족작가회의 비평분과위원회, 『한국 현대작가와 불교』, 예옥, 2007.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사, 2006.
전국비구니회 엮음,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예문서원, 2007.
Park, Jin Y., 『*Women and Buddhist Philosophy: Engaging Zen Master Kim Iryō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한용운 외, David MCCANN 역, 『*The Temple of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Korean Buddhist Poetry*』, 동국대학교출판부, 대한불교조계종, 2017

<논문>

- 郭戰濤, 『蘇曼殊與佛教』,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30.04, 2017.
金容稷, 『新文學草創期翻譯詩論攷』, 『백산학보』 3, 백산학회, 1967.
김광식, 『김일엽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_____, 『朝鮮佛敎女子青年會의 창립과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김순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2011.

- 남민수, 「한국 근대전환기소설에 미친 중국 근대소설론의 영향」, 『중국어 문학』 39, 영남중국어문학회, 2002.
- 林 辰, 「蘇曼殊是魯迅的朋友補說」, 『讀書』 1, 1986.
- 박노중, 「그림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통한 중국문학의 근대성 생성 연구 - 소만수의 소설 『斷鴻零雁記』와 題畫를 중심으로」, 『中國學』 55, 대한중국학회, 2016.
- 박노중 · 권혁건, 「근대 거사불교와 근대적 글쓰기 전략」, 『동북아 문화연구』 2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박영환, 「중국근대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사유와 역사의식」, 『불교연구』 35, 한국불교연구원, 2011.
- 孫之梅, 「南社及南社研究」,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
- 송정란, 「김일엽의 불교시 고찰을 위한 서설」, 『韓國思想과 文化』 75, 2014.
- _____, 「김일엽의 선(禪)사상과 불교 선시(禪詩) 고찰」, 『韓國思想과 文化』 85, 2016.
- 안재연, 「리엔아이(戀愛),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 중국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8, 2006.
- 敖光旭, 「蘇曼殊文化取向析論」, 『曆史研究』, 2010(05).
- 吳長華, 「魯迅的一個古怪朋友蘇曼殊」, 『世紀』 43, 2002.06.
-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출간과 그 의의」, 『비교문화연구』 5, 경희대학교 부설비교문화연구소, 2002.
- 이성천, 「김일엽 문학에 나타난 ‘신여성’담론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39, 한민족문화학회, 2012.
- 이태숙, 「‘여성해방론’의 낭만적 지평 -김일엽론」, 『여성문학연구』 4,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 張夢婷, 「蘇曼殊 譯介, 『拜倫詩選』 原因探析」, 『北方文學』, 2019(03).
- 張 勇, 「論蘇曼殊的禪詩」, 『寧波廣播電視大學學報』 15.04, 2017.
- 조명제, 「동아시아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동아시아불교문화』 2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 陳慶妃, 「蘇曼殊禪詩의 士大夫品味」, 『安徽文學』, 2008(04).
- 한운진(경완), 「1930년대 김일엽(金一葉) 소설의 현실과 치유」, 『춘원학보』 14, 2019.

_____, 「김일엽(金一葉)과 홍일(弘一)의 불교문화 영향력 비교연구」, 『대각사상』 34, 2020.

_____, 「일엽(一葉) 선사의 만공 사상 재해석과 독립운동」, 『대각사상』 29, 대각사상연구원, 2018.

黃 軼, 「晚清民初新文學發端的另一重視角—以蘇曼殊與海外漢學家交遊爲例」,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1.

<홈페이지>

김일엽 다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Ym8cXOE8-8>

<녹취록>

김일엽문화재단 제공 1967년 10월 24일에 녹음한 김일엽 육성과 녹취록.

Abstract

The Study of Kim Iryöp and Su Manshu's Identity and Buddhist Poetry

Han, Oon-jin(Kyung-wan)
(Academy of Buddhist Studies Researcher)

This study is part of a study on Buddhist culture and characters, and stems from interest in Kim Iryöp, Buddhism, literature, East Asia, Modernity, and Cultural people. Kim Iryöp and Su Manshu are monk writer, who lived in the modern era of transformation and confusion. The meaning and literary value of turning to Buddhism are enhanc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ves of the two characters and literary works.

First, we consider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and practicing Buddhism among the lifetime of the two charact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u Manshu, it is emphasized that he eventually returned to Buddhism, which was evaluated passively in previous studies.

Next, we examine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the two characters. Kim Iryöp and Su Manshu write works of various genres, including poems, novels, and epigraphs. The study is limited to poetic works and consider to the originality of Kim Iryöp and the balance of Su Manshu.

The commonalities between Kim Iryöp and Su Manshu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into three things: education and enlightenment facing modern times, perspective as a Buddhist practitioner throughout life, and harmony of tradition and innovation in poetry creation.

Key words

Kim Iryöp, Buddhism, Su Manshu

논문투고일 : '22. 04. 27.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